

기혼성인의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

조 경 진(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) · 김 순 미(충남대학교 교수)

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공유현상은,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를 개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으며, 이 변화는 개인의 성별에 따라 변화속도와 양상이 다르다. 또한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.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자아존중감, 성역할에 대한 태도,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문제로서 첫째,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, 성역할에 대한 태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, 둘째,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, 성역할에 대한 태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, 셋째,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직업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, 성역할에 대한 태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며, 넷째,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, 성역할에 대한 태도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.

연구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07)의 제3차 한국복지패널(KoWePS)을 사용하였으며, 이 자료는 12,930명의 가구원용 자료와 6,314가구의 가구자료로 구성되어 있다. 이중 조사대상자는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응답자로 제한하였고, 추출된 총표본은 기혼남성 3,800명, 기혼여성 4,000명으로 구성된 총 7,800명이다. 한편 측정도구는 10문항의 자아존중감(4점 리커트척도), 8문항의 성역할 태도(5점 리커트척도), 7개하위영역의 생활만족도(5점 리커트척도)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. 이중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의 Cronbaha α 값은 .790, .732인 반면 성역할 태도는 .463으로 나타나 문항감소방법에 따라 Cronbaha α 값이 .663으로 되는 3문항만 사용하였다.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연령, 교육수준 및 직업유형 변수를 포함하였다. 분석방법은 SPSS프로그램(17.0 ver.)을 이용하였으며, 빈도와 백분율, 평균과 표준편차, 교차분석, t검정, 분산분석 및 던킨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. 또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Cronbaha α 값, Pearson의 상관관계계수, VIF값을 측정하였다.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연령집단에 따른 자아존중감, 성역할 태도 및 생활만족도 차이를 보면, 기혼남성의 자아존중감은 60대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였고, 기혼여성은 높은 연령집단이 감소하였다. 또 가정생활에 대한 성역할태도는 기혼남성의 경우 50대까지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다 감소하였고 기혼여성의 책임감과 스트레스는 40대이후 증가하였다.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은 모두 연령집단이 높아질 때 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. 둘째, 교육수준별 자아존중감은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높았고, 가정생활에 대한 성역할태도는 기혼남성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집단일 때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가장 높았으며, 기혼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집단이 낮았다. 또 생활만족도는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. 셋째, 기혼남성의 자아존중감은 직업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에 비해 낮은 반면, 기혼여성은 그 반대현상을 보였고, 가정생활에 대한 성역할태도는 기혼남성의 경우 직업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와 책임감이 더 많은 반면, 기혼여성은 반대였다. 그러나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모두 직업없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낮았다. 넷째, 중다회귀분석의 결과, 기혼남성의 자아존중감은 연령, 교육수준, 직업유형에 의해 영향받았고 변수 설명력은 12.4%였다. 그러나 가정생활에 대한 성역할태도는 연령, 교육수준 및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받았으며 변수 설명력은 14.5%로 증가하였고,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변수는 연령, 교육수준, 직업유형, 자아존중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성역할태도로서 설명력은 39.1%였다. 반면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연령, 교육수준, 직업유형이었으며 설명력도 12.4%이었다. 그러나 가정생활에 대한 성역할태도는 연령 및 직업, 자아존중감에 의해 영향받았고 변수 설명력은 11.1%로 감소하였으며,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변수는 교육수준, 자아존중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성역할태도로서 34.0%의 설명력을 나타냈다.